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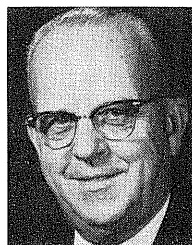


성도의 빛 12 1971



## 영감의 메시지

후랑크린 디이 리차즈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즈는 그의 작품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슬의 옷을 입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풍요하고 보람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사슬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습관의 사슬은 그것이 강해져서 끊어지지 않게 될 때까지는 너무나 미약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강한 삶의 사슬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직한 습관이 강력한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주의를 정직과 같은 어떤 이상이나 원칙에 집중하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직의 참 뜻을 도덕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말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폴로니우스가 그의 아들 프르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함으로 정직의 본질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니라”(1막 3장)

사람이 자신에게 정직하겠다는 표준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미 그는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거보를 내딛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정직할 때 가족에도 성실하게 되며, 고용주에게도 정직하게 되며, 하나님과 조국에도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

### 제 7 권 제12호 순서 1971년 12월호

■ 대관장 메시지 :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조셉 필딩 스미스.....	1
내 형제의 보호자 존 에이치 반덴버그 .....	2
하나님의 사랑 버나드 피이 브룩뱅크.....	6
간음하지 말라 밀톤 아아르 헌터.....	9
사탄 거짓의 아비 마리온 지이 롬니 .....	12
편지 루실 시이 리딩 .....	15
데비와 말하는 흑판 도로서 던스테터 와너 .....	16
생명수를 마시자 로렌 시이 던.....	19
소년단의 대행일 도라 디이 프랙크.....	22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벨빈 드그로우 .....	24
방향의 문제 라엘 제이 리트케.....	26
성탄절—자녀들에게 추억을 리차드 엘 이반스.....	29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를 추모하며 마리온 디이 행크스 .....	30
선교부장단, 지방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32

# 성도의 빛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12월 1일  
통권 제77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우편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4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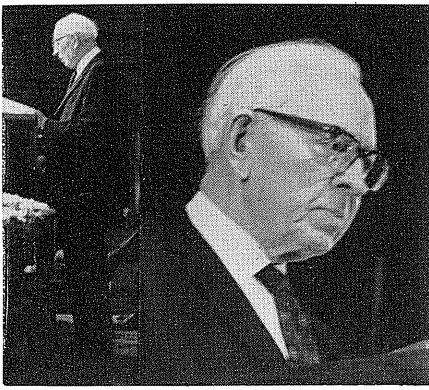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19세기의 덴마크 화가 버텔 돌발드센이 그린 유명한 그리스도의 상이 몇년 전에 이태리의 조각가 알도 레베키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주의 전경을 가진 배경과 함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템플스케어의 방문자 센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리신 팔은 세상 사람을 그에게 받아들이시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나는 교회와 모든 회원이 세상의 악을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권에 관해 특별히 행해진 이 메시지는 141차 연차 대회와 신권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날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형제로서, 성 신권의 소유자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주님의 성스러운 권능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임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표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의 다른 자녀는 물론 우리 자신을 구원하며 승영을 얻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의식을 행하며, 인류를 축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혹 기적을 행하며, 그가 계셔서 행하리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행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계명에 의해서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의 메시지나 받아들이거나 할 교리나 칙령이나 성임이나 영원한 결혼을 행할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행하는 것 중 그에 관련된 모든 일은 위임된 권능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신권을 받으면 많은 세속적인 일들을 버리고 성도로서 생활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옷을 입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흥차나 커피나 담배 및 술을 들며 습관성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활이 불결하며 야비하며 저속

하고 부도덕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애굽기 19:5~6.)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덕과 신성함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까지 내려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매사에 "택해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므로 우리는 특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온 정도만큼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 왕국의 일을 첫째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표준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와 모든 회원이 세상의 악을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병을 막듯이 모든 부정과 부도덕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아 제한을 하므로써 삶의 원천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유산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활 태도가 율법의 준수 및 이미 확립된 승

# 내 형제의

존 에이치 반덴버그  
관리 감독

고한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는 훌륭한 교회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여기면서 그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교성 58 : 22)라고 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할 말이나 행동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생활하여 그의 생활과 같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은 주님 자신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가 빛 속을 걷는다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영광과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영광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멀리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제일로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입에서 행해진 모든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면에서 제사장 나라나 의로운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초월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과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및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희망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약에 참되고 성실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어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불의의 사고로 한 어린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젊은 어머니가 그녀의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애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지상에 있었던 첫번째의 가족에 대해 회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 : 1-10.)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로 고통과 슬픔과 비극이 인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의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관해 주님께서는



# 보호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므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요한 1서 삼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11, 14, 16, 18.)

모성애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부드러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기 위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었고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애써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세상과 그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요 3:16) 이를 멸망에서 구하시고, 그의 아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노력해서 희생한 바를 사랑합니다. 희생으로 이끄는 봉사와 아낌없이 주는 정신은 사랑을 창조해 줍니다. 다음에 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 씀처럼 “경건”이란 말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한 관심을 뜻하는 말입니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종교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며 나는 종교적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이는 그들이 동료들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고상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 이웃 사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에드윈 마크햄<sup>1</sup>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간절한 말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생활하며 인생의 완전한 선을 알려면 인간은 세 가지 점을 소유해야 한다.

“이 세 가지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빵과 미와 형제애이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리라.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 밭이나 포도원.....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니,

1. 미국의 시인이며 개혁가 1852~1940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하며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

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16-2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것처럼 선하게 대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처럼 행복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선하게 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훈계하셨습니다 :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재물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앞에 바치라”(교리와 성약 42:30-31.)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협조에 관한 이러한 계명은 교회 정사에서 볼 수 있는 금식의 원칙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굶주릴 때 하루를 금식하여 이를 그들을 위해 감독에게 바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랜 동안 풍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크고 중요한 금식의 원리인 것이다. 성도들이 모두 기쁜 마음과 즐거운 표정으로 이 원칙에 맞추어 생활한다면 언제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7권 413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매달 첫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제시된 여러분께서는 이 금식일의 기원에 관해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십일조가 지불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기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커틀랜드 시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그는 금식일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으며 곧 이날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은 지금처럼 한달

\* 1896년 11월 5일까지 교회는 매달 첫 목요일을 정규적인 금식일로 지켜왔으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결정으로 1896년 12월 6일 일요일부터 금식일을 매달 첫 일요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펜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 대 백과사전 1941)

에 한번씩이었으며 그날 먹을 모든 음식들 즉 밀가루나 고기, 과일 및 그외의 것들은 금식 모임에 가져와 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이것을 지킨다면 가난한 자가 밀가루나 버터, 치즈, 고기, 설탕 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부족을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가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절약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문에 실립시다. 금식일인 매달 첫 목요일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종이 먹을 음식을 모두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하는 마음에서 감독의 손에 전함시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나의 몫을 기꺼이 바치겠으며 나의 와드에 가난한 자가 없다면 가난한 자가 있는 와드에 이것을 분배하겠습니다. 만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매를 위하여 방을 찾는 자매가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방이 제공되었는가를 살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마음 속에 더 많은 평안과 위안을 얻게 되며 우리의 영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충만한 평안에 싸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은 그들의 교사를 통해 자기의 와드 내에 있는 능력있는 가족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금식일을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설교집, 12권, 115-116페이지)

나는 오늘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기본적인 양식과 그외의 필요물을 보다 풍족하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감독은 이러한 원리를 그의 와드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에드윈 마크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빵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형제애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해 아름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

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침의 해돋이와 저녁의 일몰 광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으며 빗소리과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꽃이나 무지개의 색깔의 훌륭함과 사막과 숲과 들과 산, 강, 대양의 경치의 변화 무쌍한 아름다움을 알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마음에 들떠 있으며 충만한 우리의 생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형제의 보호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것인 아름다움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찰하고 느끼며 즐겁시다. 마가렛트 엘 화이트는 다음의 글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책임감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

“나는 어린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러한 기쁜 특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 어린애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알만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껴안으며 그 뜻의 부드러운 잎사귀를 만지면서 그 뜻의 밝은 색을 즐겼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가 동우리를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새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가 그의 새끼를 돌보는 것을 보고 경이스럽게 여겼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는 이것을 다시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어린애는 자꾸 되풀이 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쉬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무에 기대었으며 하나님의 시원한 공기로 이마를 식혔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땅거미가 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린



애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모습과 믿음에 찬 눈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웠습니다”(루시 거취 편, 일본짜리 걸작품집(북크래프트, 1953년) 99페이지.)

아름다움이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세번째 욕구이며 나아가서 최대의 필요 조건인 형제애란 어떤 것일까요? 확실히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이 현대의 세상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 39)는 말씀은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인 편의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 주는 새로운 발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지식이 확대됨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과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는 비교적 늦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형제애에 관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비가 된 아름다운 유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왕자 가운데서 왕이 된 하만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개가 그에게 와서 절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자 매우 노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진멸에 관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왕비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당시의 법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회답을 보였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 뜰에 들어가서 왕

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홍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모르드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이에 에스더는 자기의 동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 : 8, 11, 14, 16)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 결과 에스더는 그녀의 동포를 위하여 이러한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버튼 힐리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이러한 의무를 되새겨 봅시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동리에 낯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알아 보도록 합시다. 만일 그가 내일도 역시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달 전 캘리포니아 주 산 페르난도 계곡에서 실제로 훌륭한 형제애의 모범이 될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여섯시에 지진의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사, 상호 부조회 지도자, 각 신권 정원회는 즉시 가정으로부터 대피한 수백명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교회 회원의 집에 임시 거처를 정했습니다

삼십분 내에 두명의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에게 할당된 가족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특별한 지시 사항이 없음을 알기 위하여 감독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외 다른 가정 복음 교사는 신권 지도자들을 방문했으며 이들이 차례로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은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첫번 지진의 동요가 있던 후 여섯 시간만에 어떤 와드는 대부분의 회원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가장 타격이 컸던 곳을 찾아 다녔으며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나다 힐에 있는 제사 정원회는 일곱 자녀가 있는 가족을 다른 가정으로 옮겼습니다. 감독단 제일보좌인 한 형제는 굴뚝이 지붕 위로 넘어져 천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곧 불이 붙은 이웃 집만큼 우리 집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이라곤 없었으므로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 불을 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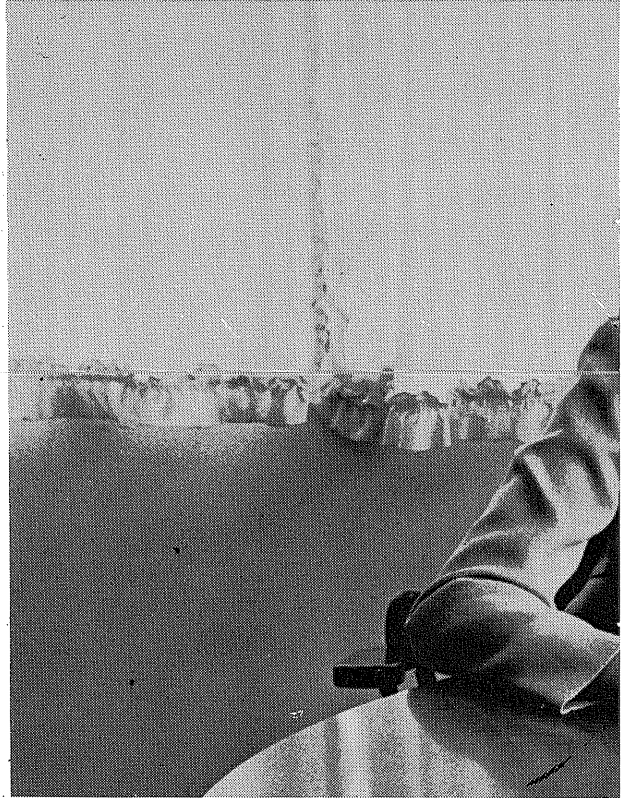
직장으로 가던 길에 지진을 만난 한 감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자기의 집이나 와드 회원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동안 제사 정원회 회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오후 일찌감치 와드 내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연락이 취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화가 복구된 즉시 대피하고 있는 가족을 차기 집에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성도로부터 끊임없는 제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은 훌륭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 그들이 보여준 노력은 정말로 신의를 두텁게 해 줍니다.”

항상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매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를 형제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대로 생활하고 참된 우리 형제의 보호자가 되도록 살므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기본적인 필요에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손을 뻗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모든 악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 하나님의 사랑

버나드 피이 브룩뱅크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가르칠 것을 명하셨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구세주가 지상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인간이 주님에 대한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는 데는 커다란 지혜와 성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지상에 모든 식물과 동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오한 위대성과 축복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등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와 육신의 탄생은 성스러운 권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생과 영생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충만한 존경과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사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하든가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창조된 어떠한 것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포악한 성격, 다툼, 부정, 간음, 시기, 습관성 약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불경한 태도, 안식일에 대한 불경한 태도, 십일조의 법을 지키지 않음, 질투 등으로 사탄에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적이며 인간의 자유와 주님에 대한 순종을 망치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성스러운 성격과 신성함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악과 사악함의 장본인이며 우리는 마음과 행동으로 사탄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나 결코 이를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친밀함이나 그와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욕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최상의 권능이나 존재를 내포하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성실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나 불교, 힌두교, 모하멧교도들이나 태양이나 자연 숭배자 및 다른 많은 신자들은 자기 나름의 기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많은 기도 방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것이 계명인지 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 : 9-13.)

이 기도는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그리스도 같은 기도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그의 왕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왕국의 건설자가 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

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도 올 것을 성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라고 말할 때, 어린 아이가 그의 부모의 뜻에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망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찬성하여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존경과 사랑과 유일함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 : 38)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 : 19.)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역경을 용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 줄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 줄 것을 성실히 간구하는 데는 평안에 가득한 확신과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기도회에서 우리

는 자녀들이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줄 것을 주님께 간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도록 간구했으며 그의 계명을 순종했으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칠만한 일들을 가르쳤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대가는 성실하게 그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성스러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게 해줍니다.

나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원 즉 성경에 기록된 십일조의 법에 대해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번역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말라기 3 : 6-11.)

사람이 어찌 십일조나 헌물을 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첫번째로 큰 계명은 너의 하나님 주를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 전 아내와 나는 어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좀 궁핍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고 십일조나 그의 헌금을 정직하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

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나의 아내는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식료품 가게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며 제차 물었습니다.

나는 “그 가게 아저씨보다는 그를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만 당신은 가게 아저씨에게는 돈을 지불하셨지요. 당신은 집주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그에게도 돈을 주셨지요.”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크고 컸째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예요. 당신은 우리가 십일조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아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지불하였으며 주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지불하는 것을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므로써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수차 인용된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고 하셨습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교성 1 : 35)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스런 때에는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까지도 교회의 머릿이십니다. 말일에 살며 말일성도가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화평과 안전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구세주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최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으며 나는 이러한 증거로부터 커다란 화평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및 모든 인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간음하지 말찌니라

인간은 기독교적인  
정숙의 표준을 버리고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밀튼 아아르 헌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

● 우리는 지금도 “너희는 간음하지 말찌니라”하고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 삼천년 동안 이 계명은 히브리나 기독교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의 지표로 삼아왔던 말씀입니다.

현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말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고대에 존재했던 순결에 관한 히브리-기독교적인 도덕의 표준을 버렸습니다. 흔히 결혼한 사람은 간음을 행하고 독신인 사람은 사통을 합니다. 그 결과는 불행, 사랑의 상실, 가정의 파탄, 이혼의 증가, 수치, 영적인 분위기 손상, 배도로 나가게 되며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잃고 맙니다.

내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몇 개의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다섯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남의 부인과 작년 한해 동안 놀아났다고 말하면서 몹시 울었습니다. 그녀는 수차에 걸쳐 차를 타고 상대 여자의 집에 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자연히 죄 많은 남편은 비참하게 되었으며 아내는 몹시 슬펐으며 어린 자녀들은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머서 41:10)

일년 전에 젊은 청년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가슴이 베어질듯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저는 이년 전에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혀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파문되어야 한다면 제발 하루 빨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 고통은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무서운 죄에 대해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

나 이상의 두 가지 경우만으로도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대의 기독교 도덕을 버리고 새로운 도덕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순결의 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의 혁명이라는 말이 선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행동으로 이끄는 유혹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소설, 잡지, 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나날이 그러한 유혹이 퍼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죄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결에 관한 설교를 하여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간음과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꾸짖는 기독교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현대의 자유적인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으며 심지어 그것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1970년 5월 17일 어떤 신문은 몇몇 저명한 기독교 목사가 한 저명한 기독교 교회를 위해 새롭게 제의된 성의 법전에 관해 삼년간의 연구를 끝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간음에 대해 절대로 반대를 하지만 그 위원회의 보고에서 나타난 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자유화된 성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부부 이외의 행위가 결혼 당사자의 안녕을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예외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그 어려운 결정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요점은 최후의 심판을 성경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양심과 개인이 하는 것이다.”(월 오스러,

# 7

## 간음하지 말찌니라

“리리저스 스톱 센타 : 새로운 성의 법전”, 퍼레이드, 1970년 5월 17일, 28페이지.)

흔히 새로운 자유 주의나 새로운 도덕이라고 불리우는 말은 새로운 옷을 입은 고대의 부도덕인 것입니다. 고대에 백성들은 많은 남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의식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계속 비난했던 조잡스런 부도덕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부도덕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 될 뻔한 많은 사람의 훌륭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결의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의 위대함도 아울러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놀랄만큼 강한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은 여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테라를 사랑하다 배신당하고 결국은 블레셋인의 사슬에 묶여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숭앙을 받던 다윗도 말년에는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과 밋세바와의 간음에 대해 무한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의 깊은 뉘우침은 성경 중에서 가장 애절한 기도의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편 51 : 1-3.)

구원의 계획을 알며 그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알고 있는 다윗 왕은 고뇌에 싸여 주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시편 16 : 10)

다윗 왕이 죽은 지 이천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처에 대해 범한 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떨어져 승영에 나가지 못하고” 그의 처와 소실들은 다른 자에게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132 : 39)

여인의 유혹을 받았으나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킨 강인하고도 고상한 사람에 관한 성경상의 유명한 예는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젊고 준수했던 종인 요셉에 관한 예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사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녀와의 간음을 완강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세기 39 : 9, 12) 그리고는 그는 그녀의 결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상을 배반하느니 보다는 감옥을 택했고 여기서 그는 몇년간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주며 그 결과로 해의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며 거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계획에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가족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복음의 계획에 일치한 가정 생활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관한 기본적인 율법이란 순결의 법입니다. 인간은 삶의 원천을 더럽히고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과 순결한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의 보상은 무엇이며 간음의 무서운 결과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물론경은 성적인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마의 아들 코리엔톤은 창녀 이사벨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인 엘마는 그의 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아들아, 바라노니,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그렇게 하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엘마서 39:5, 9.)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모세서 6:57, 갈라디아서 5:19-21, 고린도전서 6:9)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계실 때 순결의 법을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

예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

엘마나 예수가 순결의 법을 가르친지 이미 이천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에 관한 법을 폐기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늘로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의 복음과 교회를 회

복하셨습니다. 그는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다른 계시로서 오래된 계명을 재확인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교회에 속한 백성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 영을 지니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리라”(교리와 성약 42:22-23.)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별의 영광에서 간음자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탕한 자요……

“이들은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고통을 겪을 자니라.”(교리와 성약 76:103, 106.)

주님께서는 경륜의 시대에 신권 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교리와 성약 121:45-46.)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모든 부정한 행동을 금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게 되며 다음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광과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생명수는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 사탄 - 거짓의 아비

마리온 지이 롬니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저녁 주님의 적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느 딸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존이 악마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에 어머니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고 결혼해라 나와 내가 그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보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추론은 마치 악마가 세상에 없다는 어리석은 교리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을 지어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믿는 것은 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굴복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일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사탄은 강력한 영

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인류와 의로움의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함께 존재한다는 현실은 경전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확실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설명한 창세 이전의 천국 회의는 이 모임에 하나님과 사탄이 모두 참석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3:22-28 참조)

놀라움과 중요한 것은 그 기사 가운데서 나타난 지식인데 이는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의 자녀와 지구 창조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와 사탄을 확실한 개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진 진리를 확실히 보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한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니, 저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만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 4:1)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사탄과 천국 회의에서의 그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이사야 14:12-15.)

이 말일의 경륜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천국 회의에서의 사탄의 역할에 관해 지난 경륜 시대에 나타내 준 바를 확인하셨습니다. 1830년 9월 그는 예언자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아담보다 먼저 있던 자라. 나를 거스려 말하되, 내게 당신의 영예를 주소서 그것은 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고 이에 천군의 삼분지 일을 각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나를 배반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29:36.)

1832년 2월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한 천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거스려 배반하여 하나님과 아들 앞에서 내어던짐을 받았으니,

“이 자는 멸망이라 불리웠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 저를 위하여 울었음이라. 저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니라”(교리와 성약 76:25-26.)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서 창세 이전의 천국 전쟁을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천국 전쟁이란 다음과 같다. 즉 예수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했고 악마는 자기가 모든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회의에서 자기의 계획을 제출했는데, 투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었다. 그러자 악마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를 쫓던 모든 자들과 함께 내어 던짐을 받았던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테저렛 출판사, 1968년] 357페이지.)

사탄과 그를 쫓던 무리들은 내어 쫓겨 지상에 왔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시현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 썬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4:3-4.)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저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모세 5:12-13.)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지상에 있었습니다. 율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율기 1:6-7.)

1831년 8월 11일 일기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벡클웨인의 강가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펄프스 형제는 백주에 무한한 힘을 가진 파괴자가 물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소리는 들었으나 시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교회정사 1권 203페이지.)

사탄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의 계획을 파괴하고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17.)

겻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누가복음 22:31.)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에

게 미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하여 왔습니다. 리하이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르친 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사탄은 이것의 대표자요 조장자요 창도자인 것입니다(니파이서 2:11, 14-18)

사탄의 수법은 여러 가지요, 정도를 벗어난 외곡된 무수한 술책을 사용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진리를 가장한 시기와 기만을 행했습니다. 사탄은 기술적인 모방가이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자 그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 오랫동안 사악한 일들을 행해서 거짓말의 아버지가 되고 이에 익숙해지자 그는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혼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다니엘 에이치 루드로가 쓴 “말일의 예언자의 말씀” 중 죠셉 에프 스미스 편 [북크래프트, 1948년] 20~21페이지.) 모든 경륜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는 진리의 도래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그는 첫 경륜의 시대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과 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륜 시대에 “사탄이 와서 저를 유혹하여 말하되 인간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모세 1:12)고 했습니다.

예수의 시대에도 사탄은 주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누가복음 4:1-13 참조)

그 사탄은 이 말일의 경륜 시대에도 나타나서 대항하였으니 우리는 이를 예언자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 쌓았으며, 한 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 : 15)

물몬경의 출간에 대한 사탄의 방해는 교리와 성약의 제 십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 사탄의 또 다른 증거는 1837년 영국에 복음을 가지고 간 형제들에게 행한 사탄의 공격에 관한 허버 사이 킴볼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울손 에프 휘트니, 허버 사이 킴볼의 생애, 143-45페이지.)

“악마란 없는 것이며,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니파이이서 28 : 22) 라고 선언한 악마의 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타락된 사회의 병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사탄의 존재에 관해 떠도는 인간의 괴변에 속을 필요도 없으며 속아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탄이나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현재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그들의 사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을 시현으로 보고 세상의 변천 과정을 관찰하여서 만일 사탄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니파이는 오늘의 현실을 다 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임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함이 필요함이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악마가 저들을 움켜 쥐어 영원한 사슬에 얽어 맬 것이요, 주의 노여움을 사 멸망당하리라.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다. 참

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꺾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 때,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맬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 (니파이이서 28 : 19-22.)

나는 누구를 놀라게 하거나 낙담시키거나 겁을 주려고 이러한 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교성 10 : 5) 우리는 현실 그대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말일성도가 애매한 말로 적당히 넘길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당황해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예고없이 오지는 않았읍니다. 백 사십년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진로를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음에 따라 인간을 유혹하려는 사탄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기간에 인간이 좀 시련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사악한 무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권의 권능은 사탄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한 방패가 됨을 알

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속이기 쉬운 세대를 교묘히 손쉽게 떠맡는 악마와 협잡꾼들을 실수 없이 가려내는 분별의 은사를 포함하는 계지의 권능인 성신의 은사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는 분명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거나 살아있는 예언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여러 가지 일들의 진실함에 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으로 그의 영광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사탄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로 사탄의 영을 알아냈고 그의 힘을 느꼈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탄은 묶여 인간의 자녀의 마음 속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할 것” (교성 45 : 55) 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실 때에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그날을 견딜 것이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 (교성 45 : 57-59)는 구세주의 예언의 진실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얻기 위해 성령을 받으려면 사탄을 알아야 하며 그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사업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속지 않아야 하며 이로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편지

실화를 루실 시이 리딩이 옮김

● 거의 성탄절이 가까워 왔지만 마리안의 집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넘쳤던 과거의 성탄절을 회상했습니다. 아빠는 우체국의 배달 불능 우편 물과에 근무하셨는데 전에는 행복한 미소를 담뱃지으시고 그녀와 남동생과 엄마에게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미있고 즐거웠던 이야기나 농담을 했으며 아버지께서는 보통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그녀의 어린 남동생이 앓아 눕고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죽게 되자 이렇게 재미있던 일도 이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다정한 웃음을 띄우시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껴안아 주시던 아빠마저 웃음을 잃으셨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껴안아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마리안은 아빠마저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엄마와 그녀가 곁에 있어도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마리안은 이 문제를 엄마와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엄마를 더욱 슬프게 했기 때문이며 엄마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이러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안은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

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편지를 혼자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다 써서 마리안은 이것을 복극으로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저의 남동생이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팬츠지만 제발 우리 아버지를 전처럼 만들어 주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아빠가 시간만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고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하루 빨리 아빠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세요.

마리안”

정말 우연하게도 우체국의 다른 직원이 이 편지를 검사하지 않고 배달 불능 편지 담당인 마리안의 아버지 책상 위에 이 편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늦게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마치 성탄절이 벌써 암스트롱가에 찾아온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아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동안 서있다 전과 마찬가지로 양팔을 벌려 엄마와 마리안을 그의 품에 껴안으셨습니다. ○

# 데비와 말하는 흑판

도로시 던스테터 와너

● 데비 왓슨은 서리가 낀 창문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마침내 큰 삼일 간을 세차게 휘몰아쳐 농장을 뒤덮던 눈보라는 그쳤습니다. 아이오아 대평원은 희고 푸른 동화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엄마”하고 데비는 소리치면서 “저 멋진 세상을 화서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기와 함께 주일을 보내기 위해 다음 날 도착하기로 한 귀먹은 사촌 매리 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만일 사촌인 매리가 말을 하거나 들을 수만 있다면 성탄절인 내일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고 자신을 책해 보았으나 재미가 없을 것은 사실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성탄절 파이를 만드시느라고 바쁘게 일을 하시던 엄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벌써 보았단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볼 수가 없단다.”

데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항상 공휴일은 친척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로 재미있는 분이예요 그렇지만 테드 아저씨와 리아 아주머니는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물론 사촌인 매리 루도 그렇겠구나.” 하시며 왓슨 부인은 말을 받아 이으셨습니다. “매리는 네 나이 또래란다. 너희 둘은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나도 하나 밖에 없는 언니가 참 보고 싶었단다. 그들이 이곳에 온다니 참 기쁘구나.”

데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쳐다 보았습니다. “얘야 너 매리 루를 만나는 것이 두렵구나, 그렇지? 그래서는 안돼요. 그애는 특수 학교에 다녔단다. 머지 않아 너도 매리와 말을 하게 될거야.”

데비는 큰 수저를 들고 파이 맛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비야 귀먹은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단다.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거야.”

“네 엄마”하며 데비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리에게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망서렸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데비는 즐거운 썰매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뛰어가서 눈이 쓸린 언덕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자동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의 라디오 안테나에 매달은 두개의 낡은 종이 즐겁게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 기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러한 느낌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그런 곳에다 종을 매달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왓슨 부인이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테비의 고양이 마피는 숨으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개 보스코는 원을 그리면서 즐겁게 뛰어 다니고 큰 소리로 짖

어대기도 했습니다. 테비도 보스코처럼 친절하게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종소리로 여러분이 오시는 걸 알았지요.”라고 아버지가 말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 겨안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테비는 매리 루를 겨안았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열광적인 포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테비는 알았습니다.

테드 아저씨는 테비를 꼭 겨안으시면서 “매리 루가 종을 거기에 달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비록 종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종소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단다.”

테비는 좀 긴장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를 지나 매리 루를 쳐다 보았습니다. 매리의 온화한 갈색 눈동자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테비는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곧 어른들은 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비는 매리와 복도에서 있었습니다. 매리는 테비를 곧바로 쳐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자 했음이 틀림 없었습니다. 테비는 한번 미소를 짓고 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리는 테비를 따라 방으로 갔습니다. 테비는 자기의 옷장에서 포장된 작은 물건을 꺼내 사촌에게 주었습니다. 귀가 먹은 사촌은 미소를 지었으며 자기의 세타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테비가 그녀의 선물을 풀러 보니 아름다운 은 팔찌였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비는 고맙다는 뜻의 입 모양을 지어 보이고 팔찌를 끼었습니다.

매리가 테비의 선물을 열어볼 때 그는 감격에 벅차 눈물을 터트릴 것만 같았습니다. 조그만 금고리에 달린 장미 빛 하트형 장식을 보자 그녀는 테비를 꼭 겨안았습니다. 마침 이 때 리아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방문을 열고 “여기도 바쁘군. 자 이제 식사를 들도록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매리는 테비의 어깨에 팔을 올려 놓고 식당으로 함께 걸어 갔습니다. 테비는 의자에 앉으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귀가 먹은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맛있게 차린 식사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정말로 훌륭했으며 모든 사람은 후식을 들면서 담소를 즐겼습니다. 테비의 남동생 빌리가 음식





을 쏟고 식탁을 어질러 놓았기 때문에 데비가 그를 데려가서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매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식가가 끝난 후 데비는 빌리를 재우고 매리에게 다시 와서 그녀를 서재로 데려 갔습니다.

매리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데비는 그녀가 썰매를 타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썰매 타기란 데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로부터 밑으로 미끄러질 하면서 썰매 놀이를 즐겼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오르고 행복한 듯이 보이는 매리는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순간 데비는 매리의 귀가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데비는 매리가 얇은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깊고 보드러운 눈속으로 미끌어져 내려가는 것을 쳐다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보였으므로 데비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 두 소녀는 진흙이 옷에 묻어 마치 인쇄된 것처럼 보일 때까지 이런 눈놀이를 계속했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자 이 두 소녀는 춥고 피곤해서 썰매를 끌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린 빌리가 장난감 인형에 옷을 입히는 것과 장난감 자동차에 인형을 태워 놀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빌리와 함께

다과회용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데비는 매리가 자기의 가장 친한 학교 친구인 마사만큼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비는 매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속 시원히 말하고 그녀의 대답도 듣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데비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가 전화대 옆에 둔 흑판과 백목을 가져왔습니다.

매리는 데비가 쓰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매리야 너는 정말로 재미가 있는 친구란다!”

이에 기쁜 모습으로 매리는 흑판에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적었습니다. “나도 역시 정말로 재미있었어. 네가 좋다면 내일 우리 함께 수화를 배우기로 하자.”

데비는 다시 흑판에 “그래”라고 크게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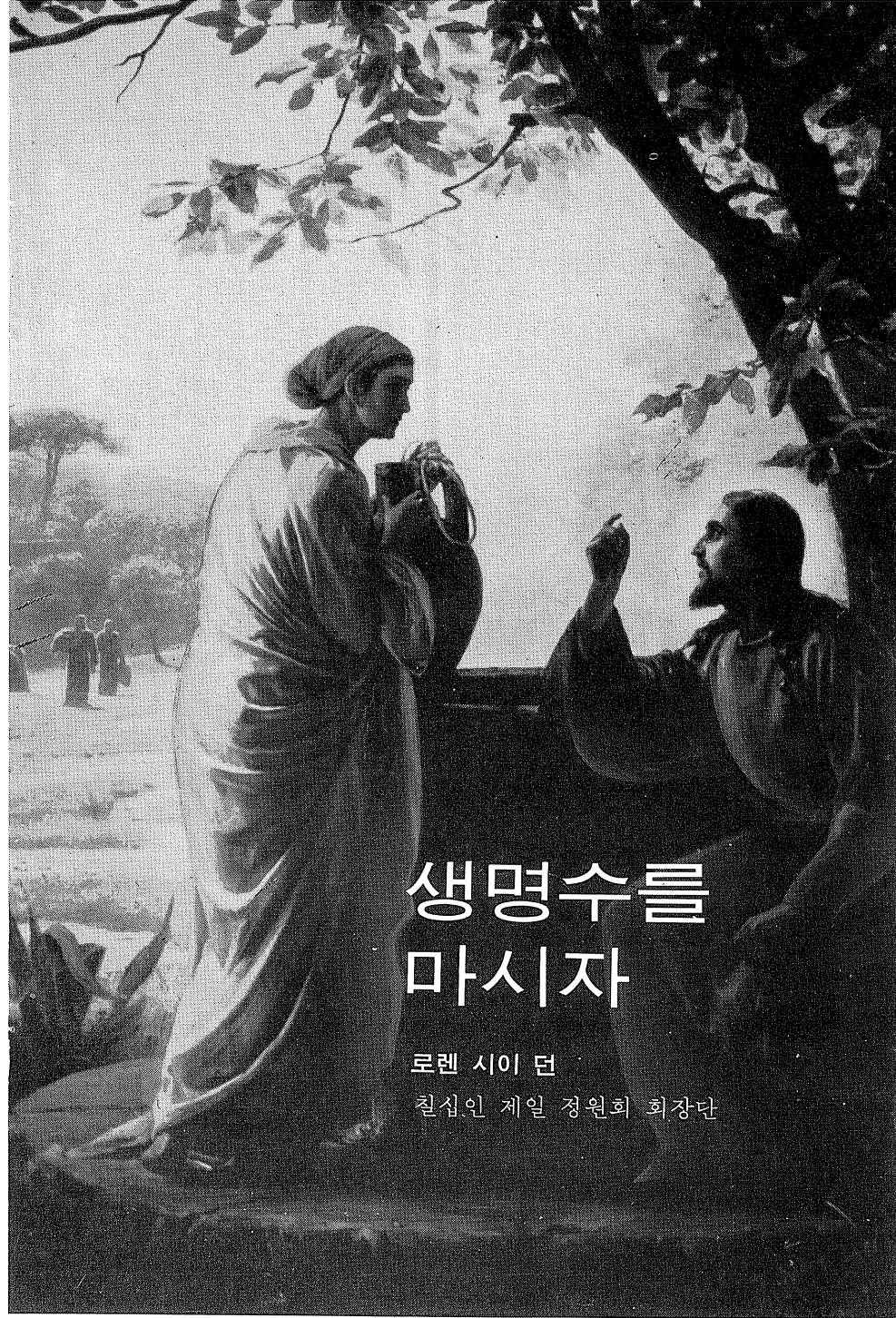
그날 저녁 전 가족이 난로가에 모였습니다. 왓슨씨는 서툰 솜씨로 벤조를 연주했으며 매리를 제외한 모두가 그의 연주에 맞추어 “징글벨”을 불렀는데 매리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흑판”이라고 이름붙인 흑판에 데비가 다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정말로 매리가 이곳에 와서 기쁩니다.”

매리는 이것을 읽고 함박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역시 그렇단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흑판 위의 글씨를 지우고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 생명수를 마시자

로렌 시이 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 생명수는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구세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 : 13~14.)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및 병고치는 원리를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물에 비유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여인에게 만일 그녀의 우물 물을 먹는다면 곧 다시 목이 마를 것이나 그의 우물로

부터 물을 마시고 그가 가르친 원리를 취한다면 결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영혼은 충분한 영양을 받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무쌍하고 도전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다른 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문제나 훌륭한 일을 성취하려고 계획한 많은 문제들이나 어떤 호전적인 성격을 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자기의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 실망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성인들이나, 자기가 찬성하는 바를 확고하게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일에는 모든 힘을 다해 앞장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나, 습관적인 약을 복용하므로써 이를 영적인 경험에 비교하려고 하며 결국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중독자들— 즉 이러한 사람들이나 그외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의 외면적 가치에서라기 보다는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내심의 필요에서 우려나와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펴고 예기치 못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만성적인 불신앙으로 이끄는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주에게 돌아가려는 경향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자기가 모르고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써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 인간의 형성 과정에는 곧혹은 조금 후에 그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내면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 생명수를 마시자

구세주에 관해서 예언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퍼사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맞으리라, 하시었고,

“주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먹여 주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거저 먹고 마시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저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노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 곧 너희를 부르는 이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엘마서 5:33, 34, 38.)

엘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영을 살찌게 하고, 화평을 얻으며, 영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엘마는 내게 명하신 이의 말씀을 빌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를 지켜 행할지어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명명으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권유로 이르노니, 오라.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생명 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라”(엘마서 5:61~62.)

이 마지막 성구가 말해 주듯이 인간은 누구나 구원 나무의 열매를

나눌 수 있으나 그가 이를 먹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몇달 전에 두 명의 젊은이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의 충고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과 제반 절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는 그들의 태도는 성실했고 적대감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질문은 이 교회가 참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냐 하는 문제와 성스러운 계시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만일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확신할 만한 답변을 얻게 된다면 다른 질문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체격이 큰 사람이 알맞을 것 같아서 그에게 “만일 네가 물의 화학적 성분을 알고 싶거든 운동장에 가서 네 바퀴만 뛰어보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 뛰기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왜 싫은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은 안하는데 나 혼자서 하기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칠장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구세주 자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가르쳐주신 행함으로의 시험 즉 영적인 시험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전을 읽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 읽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역시 그들이 기도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지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은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삼개월 간의 시험 기간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겠으나 내가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삼개월간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교사가 가르치는 요점을 기록하며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것



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삼개월간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통한 기도를 밤낮으로 할 것이며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참된지, 여러분이 행하는 바가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뜻깊은 것인지 알도록 도움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이들 중에 자칭 불가지론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곧 대꾸를 했으나 마침내는 시험이라는 조건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빛과 지식을 이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다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음 삼개월 동안 그들이 술과 담배와 습관성 약을 중지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제의는 약간의 부담을 갖게 했지만 이것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음 삼개월 동안 그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구세주가 가르치신 미덕의 원칙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실천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앞으로 삼개월 동안 매일 몇 페이지 씩의 물문경을 읽을 계획을 짜고 그 때마다 주님께 물문경의 진실함을 알게 축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만일 너희들이 이 문제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야 이녀석들이 돈 형제한테 넘어갔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도 그 시험 기간 동안은 한 두번 정도 그렇게 느낄런지도 모르나 너희들이 행하겠다고 말한 바는 꼭 지키도록 노력해라. 만일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같이 생각되면 우리가 한 약속을 항상 명심하고 용감하고 정직하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 삼개월 간의 시험에 자신을 입증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너희들은 너희 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많은 감사함이나 배려를 하게 되는 부수적인 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험이란 모든 회원이 즐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브리검 영 대관장이 그것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갖는 경험 중에서 성령의 간증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강력한 힘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주며 그대신한 원칙이나 일이 진실하다는 절대적이고 바꿀 수 없는 지식을 마음속에 남겨줍니다.

“이러한 간증은 현재까지 성실한 성도들을 보살펴 왔으며 그들의 장래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의 결과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줍니다. 모든 영과 육은 그 간증에 따라 움직이며 영혼은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살게 됩니다.”

영혼의 꺼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샘에서 물을 마셨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원이던 비회원이던 화평과 영양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갑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샘에 와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통한 기쁨과 그의 가르침과 여러분 자신의 생의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이러한 간증을 드리며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의 목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사실을 보았으며 우리는 오늘날 모든 일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우리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렸습니다. 아멘. ○

● “발을 털고 들어가라” 하며 108분대 선임 순찰 조장인 마크 웨버린은 소년들이 통나무로 지은 오래된 소년단 본부에 들어갈 때 주의를 주었습니다. 마크의 깨끗한 피부는 정연하게 빛은 검은 머리와 잘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소년단 제복은 키가 커감에 따라 매주 점점 짧아져 갔고 소매 자락은 오므라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탐험대에 끼게 될 것이므로 이제 다시 새 옷을 사는 것은 낭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최고의 영예인 이글 상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났으나 마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소년 대장인 조 파머는 책상에서 서류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크를 쳐다 보았습니다. “마크야 너 언제 봉사 계획에 참여할 작정이냐?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는 이글 상을 받을 수 없는 걸 알겠지!”

“네 물론 알고 있어요. 저도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파머 형제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라고 마크는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저는 이 봉사 계획에 관해 결정을 보았어요.”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 계획이란 어떤 것이지?”라고 조가 물었습니다.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하려고 해요”라고 말한 마크는 조의 놀란 표정을 살폈습니다.

“너는 너무 말라서 안될 걸. 너는 내가 네 대신 그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 라고 말하며 조는 자기의 뚱뚱한 배를 두들겨 보였습니다.

마크는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금을 모을 셈이냐?” 라고 조가 물었습니다.

“저는 용감한 린티라는 영화 필름을 빌릴 계획이에요. 저는 영화 상영을 위해 강당 사용 허가도 얻을 셈인걸요. 저는 이 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지역 단위의 계획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제가 타자를 찍은 입장권의 견본이 있어요”

용감한 린티

제 2와드

12월 15일

자발적인 헌금 :

성인 : 75센트, 학생 : 35센트

마크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파외로 자금을 더 벌기 위해 옥수수 튀김이나 캔디를 팔겠어요. 이렇게 하므로써 가족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다” 라고 조도 동의했다. “그런데 영화 상영의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 많은 자금을 건우어 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해요. 분대원들이 입장권을 팔고 의자를 설치하고 강당이 튀김이나 캔디를 그날밤에 파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자신을 봉사하는 거예요”

“대상 가족은 어떻게 파악하지?”

“엄마가 관청에 가서서 극빈자를 파악하실 거예요” 라고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너희들만 즐기게 되는 크리스마스가 안될까 걱정이 된다” 라고 조가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즐길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를 전혀 즐길



# 소년단의

# 대행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거든요.”

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너희보다 우린 훨씬 뒤졌구나. 마크야, 넌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후 이 주일 간은 몹시 바빴습니다. 마크는 학교에서까지도 이 문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고 마크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그는 70불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너의 계획에 보태써라” 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특별히 기부금을 주는 것을 받고 놀랐습니다.

마크에게 할당된 가족은 엄마와 네살짜리 소년과 여섯살짜리 소녀가 있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크와 그의 어머니는 스미스 부인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이 이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녀는 심히 실망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이마에다 갖다 대고는 “부자가 올 줄 알았는데 그들은 어린 아이를 보냈군요!” 라고 말하고는 겨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 훌륭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쉐버린 부인은 물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산타 할아버지의 대행자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아침 마크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쉐버린 가족이 선물을 제각기 풀고 있을 때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마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그는 명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산타?” 라고 조용히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는 이 목소리로 스미스 부인임을 알았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가슴은 푹 가라 앉았습니다. 그는 실망을 했을까요?

“저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소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성탄절을 가져다 주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마크는 스미스 부인의 자녀들이 자기와 이야기를 하고자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 삼십분 동안 그들은 이번 성탄절이 정말로 훌륭했었다고 기쁘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올려 놓았을 때 그의 갈색 눈동자는 빛났습니다. “정말로 이번 성탄절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훌륭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을 했으니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참된 성탄절의 정신을 잘 나타냈지.”

이 주일이 지난 후 마크는 소년단실에서 쥘 파머 형제에게 그의 이글 계획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쥘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번 일로서 너는 무엇을 진심으로 배웠다고 생각하니. 남에게 무엇을 주는 느낌은 제외하고 말야?”

“저는 무슨 일이든지 훌륭한 일을 혼자서만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 일은 제 전 가족과 소년단원 전원이 수고를 해 주었어요”

“그와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니?” 라고 쥘은 자꾸 물었습니다.

“네 저는 전에는 엄마가 여러 면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이글 소년 단원의 어머니가 항상 그의 아들을 쫓아다니며 돕는 이유를 알겠어요.” ○

## 도라 디이 프랙크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멜빈 드그로우

● 나는 현재 조탄을 매우 희미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앙 늘웨이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사라져가고 몇 가지의 중요했던 일들만이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해줍니다. 지금 밖에서 휘날리는 진눈개비는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조탄

· 멜빈 드그로우 형제는 공립 도서관에서 반 물론 문학을 읽고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로 회원이 된지 6년이 되었으며 트루센이스(미조리) 제 1와드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과 성탄절을 회상시켜 줍니다.

1918년 아버지께서 늘웨이 조탄의 북부에서 조그만 농장을 경영하던 해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비록 서부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비옥한 토지는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조그만 수확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심한 노동을 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탄절이란 우리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이월 초부터 갖가지 장식으로 집을 꾸미며 그 다음 주부터는 낡은 피아노 주위에 모여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세주 탄신일의 정신이 분위기를 기쁘게 해주므로 항상 이때만 되면 웃음과 존경심이 새롭게 나타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누이



와 함께 나무에다 장식을 하고 산다클로스가 한 밤중에 찾아오실 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추억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성탄절 전이었습니다. 나는 광에서 우유를 꺼내 가지고 부지런히 새로 내린 눈 위를 밟으며 작은 불빛이 보이는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몹시도 맑고 상쾌했으며 내 머리 위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나는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가냘프고 날카로우면서 찌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우유통을 들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고요가 고원과 계곡을 감쌌고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을까를 살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잘못 들었는가 하고 생각하려는 순간 가늘게 그러나 전보다는 더욱 분명하게 그 소리가 재차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먼 산에서 울려오는 찌질듯한 메아리였습니다.

비록 전에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만톤이나 되는 얼음이 접점이 쌓여 있다가 서서히 떨어져 미끄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놀랄만한 소리를 듣고 집으로 황급히 달려가서 “아버지 빙산이 무너지려고 해요.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계곡으로 빙산이 밀려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내 목소리는 겨져 들어가는 듯하다가 나는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의자의 뒷편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고 민활하게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는 내가 들었다고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상기된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그러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창문가에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그의 입김이 찬방에서 하얗게 보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그의 얼굴 모습에는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도핑의 빙산이다. 계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만일 빙산이 무너지는 날엔 이 계곡을 모조리 휩쓸며 무서운 힘으로 모든 것을 전부 파괴하고 말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난이 나의 누님이 태어나기 전 해에 있어서 그때에 조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빠르게 모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깊이 쌓인 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적설 속에 빠지게 될런지도 모르며 이렇게 되면 밤에는 도저히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눈 사태가 발생한다면 계곡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도 생명을 잃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좀 고원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곡 속에는 아홉 채의 가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시며 자기와 함께 고원 쪽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와 누이와 나는 잠박거리는 촛불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빙산의 깨지는 소리가 산발적인 간격을 두고 건너편 계곡으로부터 울려왔습니다. 아마 한번에 5센치 혹은 10센치 정도는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몇 초나 몇분 혹은 몇 시간 후에 재난이 이 계곡을 휩쓸 것인지 모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창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날이 성탄절임을 다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계곡 속 어디엔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제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집 아래 쪽 눈길 위에서 이쪽을 향해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대문 앞에 식구들이 모였을 때 날씨는 매우 추웠고 하늘은 맑고 깨끗이 개었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란 아버지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안식일 아침 11시 13분 드디어 갈도핑산 전체가 무너지며 굉장한 소리와 함께 계곡을 휩쓸었습니다. 집이라곤 한 채도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행히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무서운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구하여 주신 친절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넓은 들판에 조용히 내리는 진눈개비를 바라봅니다. 그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으며 가슴이 훈훈해 옴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성탄절 트리는 별로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성탄절 아침 눈빛이 초롱초롱한 손자 아이들은 선물을 개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리고 순진한 그들은 몇십년 전 요탄에서의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이가 들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복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추억이 지난 오랜 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곱손한 정신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

● 일흔번째 맞는 생일날 아침 아메리아 월레스는 거울을 들여다 보고 있는 한 노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것은 빛이 잘못 반사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부엌 밝은 곳에 걸려 있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를 쳐다보는 전과 같은 모습의 칙칙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칠십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늙을 수가 있을까?”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을 때 남편인 하베이씨가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지?”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양수장에 가서 사과 나무 몇그루를 캐올 작정이요. 담 밑에 서너 그루를 심을 터가 있거든.”

하베이씨와 그의 사과 나무! 그는 그들의 작은 시유지가 그들의 넓은 농장에 있는 과수원의 토지만큼 사과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증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베이, 오늘이 제 일흔번째 생일이예요.”라고 아메리아가 말했습니다.

하베이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메리아 미안해요. 깜박 잊고 있었군. 초콜렛 하나 준비를 못했는데.”

아메리아는 화가 났습니다. “하베이, 난 초콜렛과 같은 것엔 관심없어요. 당신은 내가 오늘 일흔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벌써 일흔살예요.”

하베이는 눈을 껌벅거리며 의아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벌써 일흔이군. 예순 아홉살 다음이 일흔살이

지 될그래.”

“하베이.” 아메리아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젠 늙었어요.”

하베이는 그녀에게 다가 가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당신은 늙게 보이지 않는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푸른 눈빛은 빛났습니다. “난 당신이 아직도 스물 다섯이나 설혼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걸.”

다른 때 같았으며 그녀는 웃었거나 그의 손을 잡았거나 그의 목을 잡고 부드러운 볼에 키스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녀는 단지 돌아서서 “당신 식사를 준비하겠어요”라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하베이씨는 재빨리 손을 씻고 자기의 사과 재배 계획을 계속 설명하면서 식탁을 뿔었습니다.

“당신은 큐렌 백화점에 있는 빌을 알지요.”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재배하는 사과는 무조건 다 사겠다고 말했다고요. 우리 사과의 품질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우리 것만 찾는대요.”라고 자랑스럽게 그는 말했습니다. “몇 그루만 더 심으면 몇년 내에 특별한 품목으로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군.”

아메리아는 그의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 오년이 지나서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현재 자기 나이가 일흔 다섯이고 그때에는 여든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메리아는 식사 시간에 열심히 말을 했지만 하베이씨도 이에 못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서 여섯 그루의 새 장미를 당신 정원에 심겠오. 초콜렛보다는 나은 생일 선물이 되겠지. 당신은 몇년 동안 그 장미를 즐길 수 있을 거요.”라고 말하면서 양수장으로 떠나자 아메리아는 좀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낡은 차를 향해 휘

파람을 불면서 내려갈 때 멀리서 그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농장을 팔 때에도 그는 그 낡은 트럭만은 팔지 않겠다고 고집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그의 마른 몸은 강인하고 곧았으며 가끔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너무 늙었으나 그녀는 그가 그런 것에 대해 걱정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도라나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라는 그녀와 같은 기분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습니다. 도라는 또한 언제나 훌륭한 사진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젊고 아름다웠을 때를 쉽게 회상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도라는 그녀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난 오늘 네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아메리아야.”라고 도라는 말하면서 칙칙한 거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도라가 항상 커튼을 내려서 방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메리아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으나 오늘날만은 그녀의 마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신문에서 아서 브론손 씨가 방문차 오신다는 기사를 읽었어.”라고 도라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고등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을 때가 생각난다. 모든 소녀들이 그를 참 좋아했었지. 신문 기사에는 그때가 그의 최초의 교편 생활이었다고 쓰여 있더라. 아마 그래서 자기가 출발한 곳을 살피려 오시는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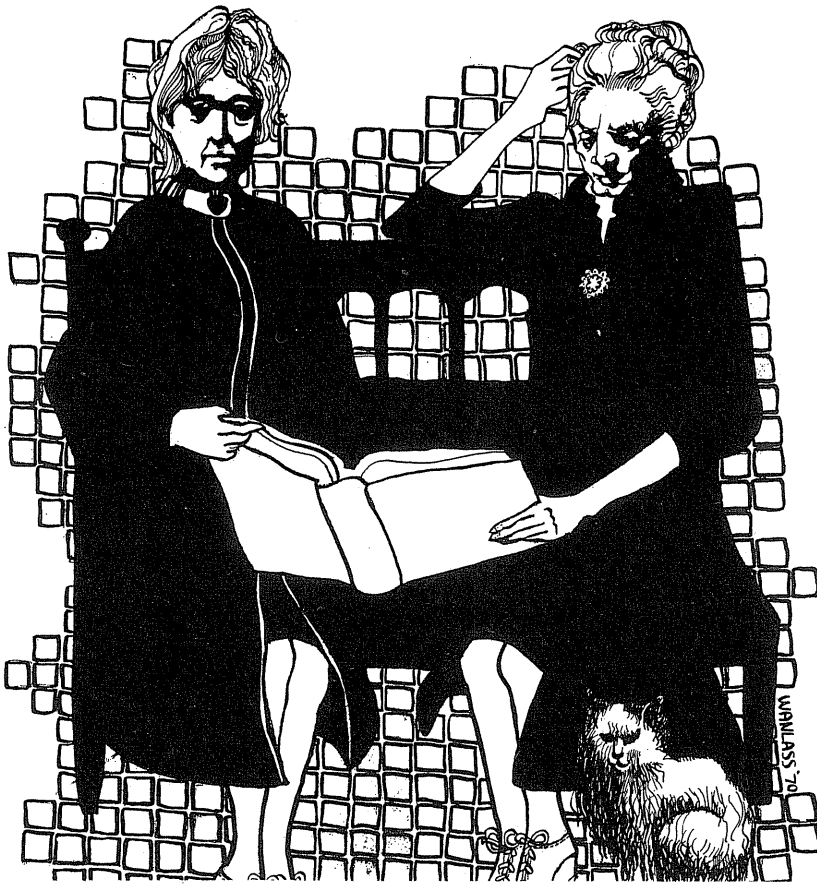
“아 그래, 나도 그를 기억할 수 있어.”라고 아메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해 주려고 그해에 영어를 열심히 배웠지. 그분은 참 멋있었어.”

도라는 신문 뭉치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아라”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동 파사페나(캘리포니아)와드의 주일학교 교사인 라엘 제이 리트케 자매는 가정 주부이자 어머니로서 그녀의 최근 작품이 레디즈 홈 저널과 그녀의 다른 국가 기관지에 실렸습니다.

# 방향의 문제

라엘 제이 리트케



아메리아가 본 그의 사진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반백이 된 모습이었고,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것은 다만 빛나는 검은 눈동자뿐이었습니다. 아메리아는 실망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하셨구나, 그렇지?”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도라도 우울한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왔단다. 모든 소녀들이 그를 사랑했던 옛날의 젊고 낭만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잠깐만 기다

려 봐. 졸업 사진이 있을거야.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거야.”

도라는 벨튼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스물 세명이 찍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자, 이 우리 모습을 좀 봐라. 모두 젊었지.”

아메리아는 젊은 멋쟁이 선생님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다른 젊은이들의 모습도 훑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입술가에는 미소가 담

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오십년 전 열 여덟살 때를 회상해 보았으나 그 소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일혼살이 된 늙은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아는 과거 젊고 어리석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철이 들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도 그 멋있고 젊었던 선생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라의 얼굴을 찾았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몇년 후에 그녀와 결혼한 빌 노울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라나 빌의 모습은 엄숙했습니다.

“년 그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니?”라고 아메리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앨범을 다시 한번 쳐다본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과 나는 이제 좋은 시절도 다가고 벌써 졸업업을 하는구나 하며 이야기를 했단다.”

아메리아는 웃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때에 그런 말을 했더니 우습구나.”

도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추억 뿐이다.” 그녀는 앞치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라는 언제나 이런 때면 울었습니다. “아메리아야, 우리 친구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들이 성장해서 많은 일들을 한 때를 생각해 보자. 그때가 좋은 때였지, 그렇지 않니?” 아메리아는 젊었을 때의 회상에 잠겼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를 고른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좋은 때였지.”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은 너무나 많고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 그 때가 좋은 때였어.” 그러한 때를 회상하면 재미도 있었으나 아메리아는 그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항상 미래의 일 즉 모든 생활이 편하고 쉬운 때만을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도라야 오늘이 일흔번째 맞는 내 생일인지 모르니?”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하며 도라는 마치 누가 자기 집 지붕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 지르는 것과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은 내가 일흔 살이 되겠구나.”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되뇌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메리카야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늙어 버렸니. 고등 학교 졸업이 바로 어제 같은데.” 그녀는 다시 앨범을 뒤적거렸습니다. “애, 우리 모습 좀 봐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도 할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우리는 모두 아무런 일도 해놓지 못했지. 이제 너무 늦었어.”

아메리카는 정색을 했습니다. “도라야, 어찌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니?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신문에 자기의 이름을 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훌륭하게 살아왔고 훌륭한 가족을 길러왔지 않니?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보아라. 너의 빌 이세도 스스로의 이름을 날리고 있고 내 아들 베이비드와 그의 모든 애들이 자기의 일을 훌륭히 하고 있지 않니. 내가 한 일이란 고작 충만한 사랑과 정성껏 만든 빵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준 것 뿐이지만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아서 브론슨 선생님을 봐라. 평생 동안 교육에 매진하셨지.” 이미 늙었고 너무 늦었다는 말에 아메리카는 남편인 하베이가 아직도 그의 과수원에서 일을 하며 훌륭한 사과를 재배함으로써 남의 신용을 얻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베이를 생각하자 그녀는 문득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음

니다. “도라야, 집에 가 봐야겠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베이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고 내가 없어서 궁금히 여기실거야.”

도라는 잔디가 깔린 때문까지 그녀를 바라다 주었습니다. “비가 없어서 빌이 섭섭해 하시겠구나?”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쓸쓸하게 느끼실거야. 그분은 아침에 산보를 나가셨거든. 별로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저 의자에 앉아 일하실 생각을 하셨어.” 그녀는 아메리카가 거리로 내려갈 때 손을 흔들며 “곧 다시 한번 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메리카는 하베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명랑한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라와 그녀의 남편인 빌과 그녀 자신이 이처럼 늙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의 명랑함 때문일까? 그렇다면 어찌서 그는 그렇게 명랑할까?

그녀가 트럭 소리를 들었을 때 그를 맞으러 뛰어 나갔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장미 몇 그루를 가져왔어요.” 하며 트럭이 정거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메리카, 당신이 얼마나 장미 나무 그늘을 좋아했는지 기억하겠지? 이제 곧 동남 쪽 구석에 나무를 세워 장미가 타고 올라가도록 해 주겠오. 이년 내에 당신은 장미로 둘러싸인 그늘 밑에 앉을 수 있을거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장미원이 되겠어요.” 그녀는 그가 트럭에서 장미 덩불과 사과 나무 묘목을 내리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베이, 당신은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때 우리가 하려던 일들을 기억하세요?”

“가끔.” 하며 그는 나무를 실은 손수레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생각할 틈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하베이는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고 조그만 과수원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도라나 빌이나 그녀가 오늘과 같은 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베이는 현재 해야 할 일들과 돌봐야 할 일들을 찾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베이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녀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려고 계획한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장미를 심어 장미 꽃으로 둘러싸인 나무 아래 앉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흔 살이면 어때?” 하며 아메리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럭 옆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머리는 비록 희나 부드럽고 빛났으며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절대 일흔 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아메리카는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보이지 않거든. 난 언제나 예순 다섯으로 보일 수 있어.

○



# 성탄절

## 자녀들에게 추억을

리차드 엘 이반스

● 일년 중 이때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들—그들의 순진함과 기대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귀향, 행복, 즐겁고 포근한 기분; 때때로 느끼는 고독감—지나친 염려 다소간의 아량 및 자신의 우월성 과시; 그외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용서와 망각 속에 뒤범벅이 되고 현재와 연결되는 모든 과거의 추억들과 뒤섞이게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여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훌륭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 주십시오. 너무 응석을 받아들이거나 방중에 빠지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 주므로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랑과 용기와 화평과 조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추억 즉 그들이 어디에 있던 언제나 영원히 그들의 삶을 승화시켜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추억을 남겨 줍시다. 성탄절은 빨리 왔다가는 곧 사라지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와 진보, 정직과 존경, 생각과 마음과 신의 조화 및 인상깊게 남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 합시다. 물론 누구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불평하지 말며 롱펠로우가 쓴 다음과 같이 희망이 넘치는 글을 기억하며 인내와 감사와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살아갑시다.

성탄의 종이가 울린다 저 캐롤 높이 퍼진다  
온 땅에 울려 퍼진다 행복과 기쁨 싣고서  
내 실망하여 말하되 이 땅에 평화 없으며  
시기와 미움 비방이 기쁨과 행복 쫓았다  
그때에 저 종 울린다 이 종은 크게 울린다  
하나님은 살으시고 악인은 멸망 당하리  
성탄의 종이가 울린다 온 땅에 정의 차도록  
저 소리 크게 퍼진다 행복과 기쁨 가지고!

1. 롱펠로우, 헨리 워즈워즈: 미국의 시인 겸 하버드 대학 교수(1807~1882)

“성탄의 종이 울린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180장, 롱펠로우의 시 참조



# 리차드 엘 이반스

1906~1971

마리온 디이 행크스  
십이사도 보조

● 1971년 11월 1일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측량할 길없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먼곳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크나 큰 충격을 갖다 주었으며 문득 다음과 같은 어느 시인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푸르른 가지에 위풍을 자랑하던  
거구의 삼목이 언덕 위에 큰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텅빈 터만을 뒤에  
남기듯이”

리차드 엘 이반스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주님의 사도였고 쏘트레이크 시의 템플 스퀘어로부터 전 세계로 퍼지는 태버나클 합창과 함께 “진리의 말씀”의 창작자로서 수백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왔으며 국제 로타리 협회 회장으로서는 백수십개국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유가족에게 그들의 슬픔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에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홉 남매의 막내로서 그가 세상에 태어난지 십 수만에 부친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그의 생애와 성품은 신앙과

용기와 희생이 함께 뭉쳐진 가정에서 사랑많은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리차드 이반스가 그토록 탁월한 인간이 되도록 평탄한 인생 행로를 마련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적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종종 과거를 회상했었습니다. 그는 꽃을 가꾸어서 팔았으며 신문을 돌리었으며 소오다수를 팔러 다녔으며 트럭 운전을 했고 면직물 장사도 했고 광고 및 인쇄 사업에도 종사했고 철도 승무원도 했었으며 방송계에 풋내기로 발을 들여 놓기도 했습니다.

말일성도 대학을 다닌 후 유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나 도중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근 삼년간 그는 영국에서 봉사했으며 밀레니얼 스타 지의 부편집인이 되었고 후에 유럽 선교부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선교사의 임기를 마친 후 이반스 장로는 쏘트레이크에 있는 케이에스 엘라디오 방송국과 관계를 맺었고 다시 유타 대학에 들어 갔으며 이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학사와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사이에 그는 탁월한 라디오 아나운서와 경영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차드 이반스의 명성은 최근에 전국적인 방송망을 확보한 태버나클 합창과 함께

제작자와 아나운서로서 그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때까지 근 사십여년간을 매 주일 아침 항상 변함없이 적절하고 자극적이며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짧은교설를 직접 써서 낭독했습니다. 그의 예민하고, 마음을 가라 앉히며, 마음을 끄는 영감은 수백만의 가슴속에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였으며 그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경험한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수많은 그의 다른 사람도 그의 방송을 경건한 마음으로 애청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봉사 기간동안 그의 문학적인 재능이 인정을 받아서든 살이 되었을 때에는 임프르브먼트 이라의 편집인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는 삼십 년 이상을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서른 두 살의 나이에 그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의 부름은 그에게 광범위한 선교 사업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1953년 10월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 정원회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집회이전 그외의 어떤 모임에서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언제나 그는 회개할 것을 가르쳤고 영원한 원칙을 전했으



사진 해설 :

태버나클 합창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선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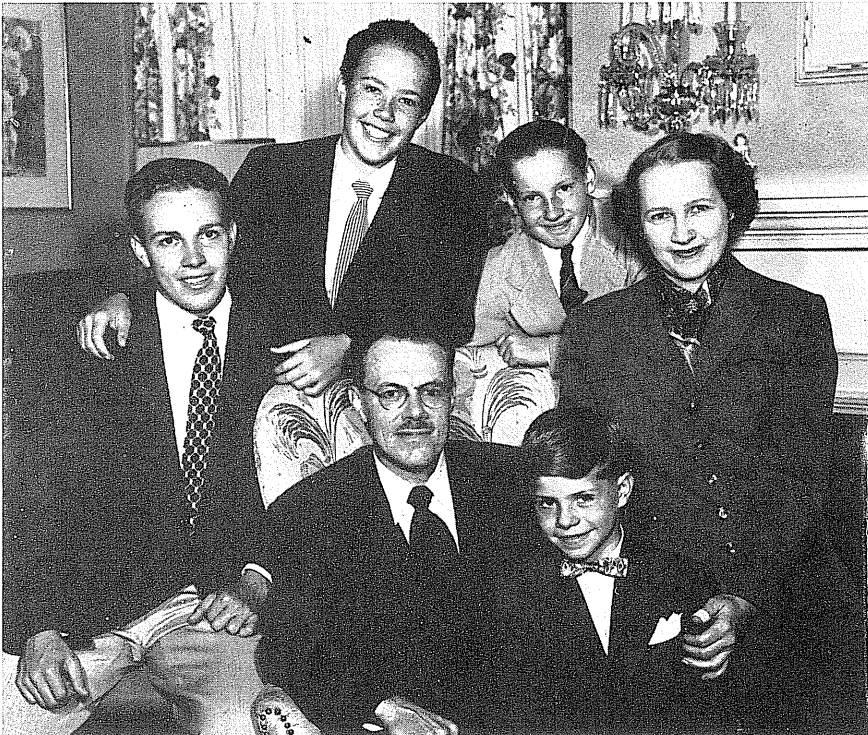
리차드 엘 이반스와 엘리스 돈리 이반스와 그의 아들 윌리엄. 뒷열 전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리차드 엘 이반스 이세 존 돈리 스티븐(1953년 이반스 장로가 사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찍은 사진)

며 훌륭한 삶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고 변치않는 진리의 무한한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세상을 살았으며 주님을 봉사했으며 그의 동료들을 도왔으니 그는 주님의 사업과 인류의 이익을 위해 그의 시간과 재능을 모두 바쳤던 것입니다.

위급하고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리차드 이반스의 말을 생각했으니 이들 중에는 대단한 직분의 인사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 회원도 있었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 먼곳에 있는 친구들이 병상으로 문병을 왔으며 그의 가족들을 위로했고 11월 4일에 있었던 그의 장례식에는 평소에 그가 관제했던 모든 세계적인 구역에서 조문객이 모여 들었습니다.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있었던 그의 장례식 때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스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명의 아들과 그의 몇 자녀들이 함께 했습니다. 복잡한 인파로 싸인 건물 내의 자리에는 총 관리 직원인 그의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이 그를 위해 노래했으며 장례에는 음악과 찬미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주님 사랑과 영으로 찬탄했습니다.

리차드 이반스의 이름이나 생애나 성스러운 봉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선교부장단 ■

선교부장 부 라운 (중 앙)

제 1 보좌 이 호남 (왼 쪽)

제 2 보좌 박 재암 (오른쪽)



■ 동중앙 지방부장단 ■

지방부장 김 창선 (중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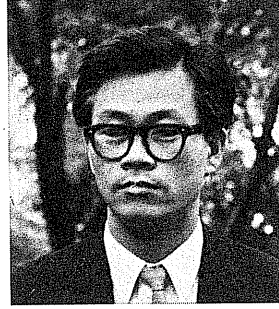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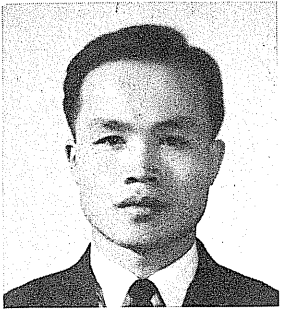
제 1 보좌 주 덕영 (왼 쪽)

제 2 보좌 서 현봉 (오른쪽)





■ 서중앙 지방부장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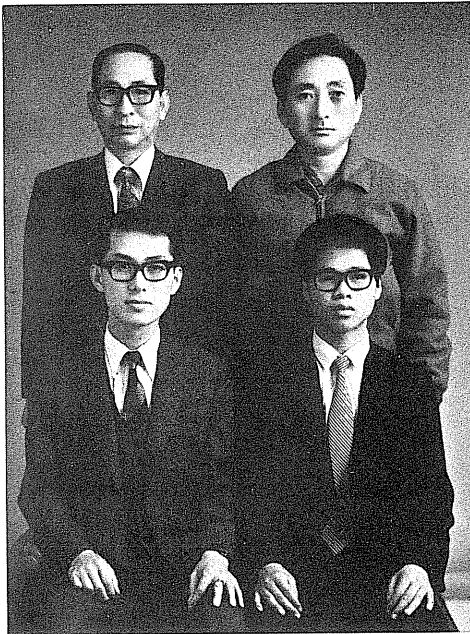


지방부장 한 인상  
(중 앙)

제 1 보좌 윤 덕순  
(왼 쪽)

제 2 보좌 김 중균  
(오른쪽)

■ 남부 지방부장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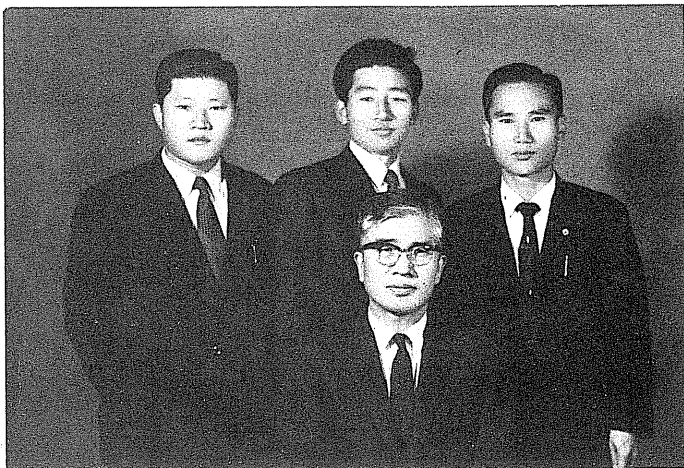
지방부장 안 승언 (앞은 왼쪽)

제 1 보좌 김 수경 (뒤열 왼쪽)

제 2 보좌 장 재환 (뒤열 오른쪽)

서 기 손 용기 (앞은 오른쪽)

■ 호남 지방부장단 ■



지방부장 이 재수 (앞은 분)

제 1 보좌 박 병규 (뒤열 중앙)

서 기 정 병주 (뒤열 왼쪽)



